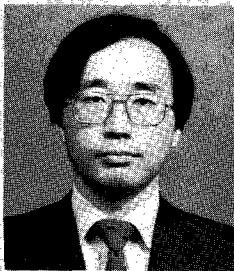


산란계 체중 미달, 증가 원인과 대책



안 형 진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 코리아

난가는 좋다. 생산비를 훨씬 상회하는 난가다. 하지만, 많은 농장에서는 난가는 좋은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다고 한다.

생산성이 낮아 난가가 좋아해도 실질적인 수입은 없다는 말이다.

난가가 좋을 때 산란하는 계군도 많고 생산성도 좋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장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산란 피크가 90% 이상 올라가는 듯 했으나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지면 IB가 지나가는 듯 난각이 나빠지고 파란이 늘고 피크가 끝나는 것 같다가 얼마 안있어 다시 산란율이 올라가는 소위 더블 피크 계군도 있으며 피크인데 오히려 체중이 줄고 사료 섭취량이 적어(90~95g/수 내외)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이런 높은 산란이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영양사료를 먹이면 괜찮을까? 난중이 적어 난중을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산란율이 올라가다가 85% 전후에서 지지부진하여 이것이 피크인지 의심하게 되나 더 이상 산란율은 올라가지 않고 오직 이대로라도 좋으니 오래 지속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산란율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가금티푸스로 폐사가 엄청나게 많아 계사내 케이지가 빈 칸이 많은 농장도 있다. 물론 생산비가 높아져 난가가 좋아도 수익성은 많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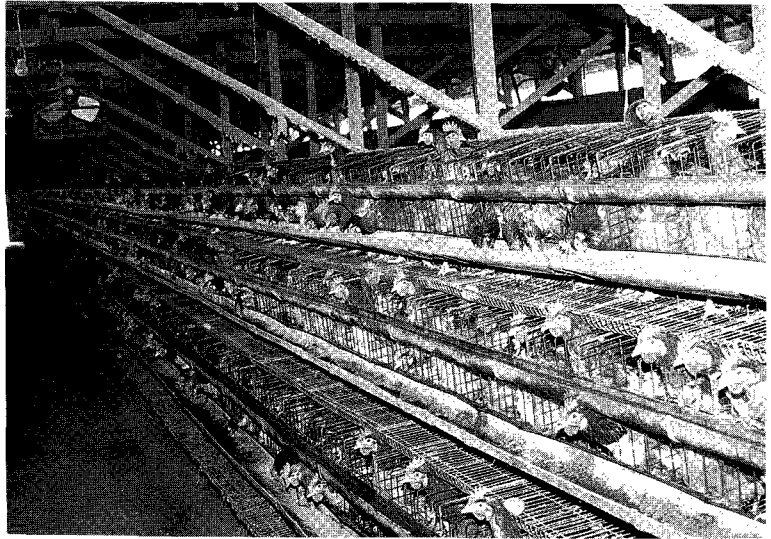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칙에 입각한 닭 입장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닭을 중심으로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1. 유전능력이 향상 되었다(조선, 다산, 작은 체중)

육종의 발달로 초산일령이 자꾸만 당겨져 19

주령 전후면 시산하며 빠른 계군은 16주령에도 산란을 하도록 육종되었다.

아울러 체중은 줄어들고 산란은 많이 하도록 개량되었다.



2. 환경 악화

자동화, 기계화의 덕분으로 좁은 장소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숫자의 닭을 사육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닭 입장에서의 환경은 오히려 나빠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선 밀사되어 환경이 나빠질 위험이 많다. 물론 완벽하게 관리 운영되면 문제 없겠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완벽하게 운영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3. 관리 퇴보

과거 계군수가 적고 자동화가 덜된 농장을 운영할 때에도 관리는 힘들었지만 비교적 운영은 잘 되었다. 그러나 자동화가 이루어진 요즘에는 이런 점들이 점점 퇴보해 감을 느낀다.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퇴보되어 닭 입장에서 보면 애정과 정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 계사가 700~800수인 농장에서 전 가족이 붙어 운영하는 중국의 평균적 산란계 농장의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껴야 한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시대가 바뀌었다하고 넘어가기에는 너

무나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4. 오염 심화

갈수록 질병이 극성을 부려 산란계 농장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이 현실이다. ND, IB, ILT 등도 무서운 전형적인 양계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더 무서운 가금티푸스가 등장하여 대부분의 농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더 오염되어 기존 질병은 변형되어 근절이 안되면서 더 무섭고 강력한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게 된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1. 5주령의 체중을 목표 체중에 맞추자.

육성할 때 체중관리는 하지 않았으면서 산란 피크가 안 올라간다고 불평하는 농장이 많다. 생산성은 노력 없이 우연히 높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산란 피크를 올리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육성을 잘 해야 한다. 대부분의 육성시 체중

성장은 8~10주령까지는 목표 체중보다 한참 떨어져 성장하다 10~12주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체중이 목표체중을 상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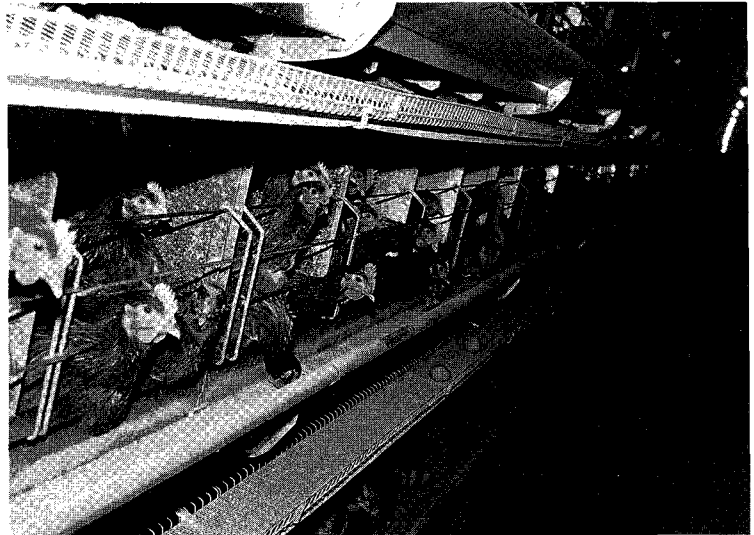
물론 10주령 미만에는 매주 시행되는 접종으로 목표 체중보다도 크게 키우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 연구에 의하면 산란 성적의 좋고 나쁨은 이미 5주령 때 결정된다는 것이다(표1 참조).

옛말에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골격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1. 산란 성적과 5주령 체중과의 상관관계

항 목	주 령	상관 관계
산란지수	60주령까지	83
	69~70주령	94
	70주령까지	93

처음 3주령까지는 초이사료를 반드시 급이하면서 체중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3주령에 체중을 달아 목표 체중과 비교하여 상회하면 어린 병아리 사료로 바꾸고 미달이면 초이사료 급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4주령 때 다시 체중 측정하여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어린 병아리 사료로 바꾸고 또 미달이면 계속 초이사료를 급이하여 5주령 때 목표 체중에 반드시 도달하도록 한다(표 참조). 즉, 갈색계라 할지라도 목표 체중 대비 5% 정도 크게 육성하는 것이 좋다.



2. 출입 제한, 방역 관리 철저 등 원칙을 준수하자.

질병 감염에는 예외가 없다. 설마하다가 큰 일 당하기가 심상이므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IB, ND, 티푸스가 만연하는 요즘에는 출입 통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며 꼭 출입해야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방역복, 비닐슈즈를 착용하여 출입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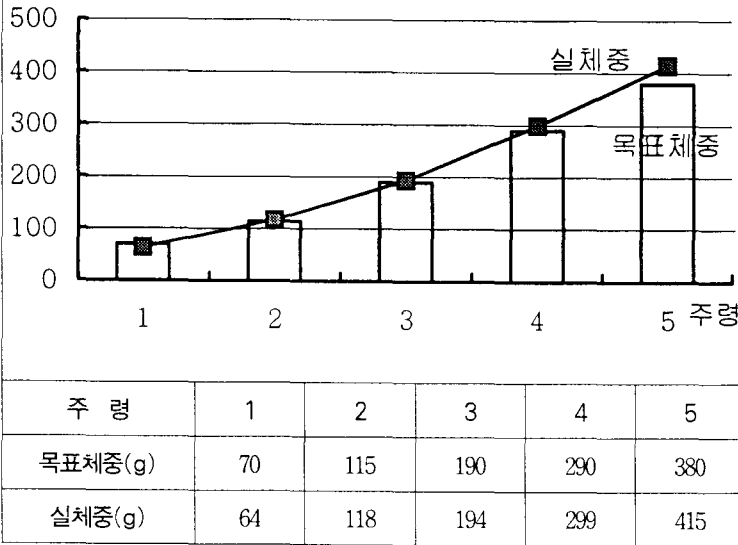
이외에도 티푸스 방지를 위해 계사내 소독을 정기화하며 계분이 농장 한 곳에서 잘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해야 한다.

오염된 계분 1g은 1,000수의 닭을 가금티푸스에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집란 및 선란이 자동화 되어 선란 후 난중 분포가 자동으로 기록되며 그림까지 그려지다 보니 매일매일의 선란 기록 결과를 묶어 두

표2. 초이사료로 육성할 때 체중 성장 예



화되어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도 한참 뒤에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원인 규명 및 긴급 처방할 시기를 놓쳐 더 큰 손해를 보기가 쉽다. 따라서 프린트된 것을 잘 정리하여 매일 및 매주의 변화를 철저히 감시하여 사소한 변화에도 즉각 대처해야 한다. IMF 위기 이후 산란계 사업은 조기에 구조 조정을 마쳤으며 소득 감소와 함께 각광 받는 사업으로 바뀌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면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

기만 하는 농장이 많다. 그러다 보니 감각이 둔 여 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양계

개량 토종닭 분양

※ 분양 품종

- ★ 한협 3호 분양
- ★ 청둥오리 분양

※ 병아리 분양 및 상담

-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분양합니다.



동남농원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34)672-0088, 674-0606, Fax:(0334)674-0050
 핸드폰 : 011-307-7208, 호출기 : 012-1363-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 : 윤 용 구
 우체국 : 101634-0021930, 예금주 : 윤 용 구